

2018년 11월 24일 한외사연구회

주지번, 강알광 저 『사조선록 역주4』 김한규 역, 소명, 2012.

발제4. 주지번 <봉사조선고> pp. 298-357

주연정

- 한강 주변에서의 유람에 대한 묘사
- 주지번이 조서와 별도로 시문이 적힌 부채를 하사하는데, 이에 대한 칭송
- 명의 문장력에 대한 칭송(송, 당, 진 등 이전 중원왕조 관련 지식인들이 많이 언급)
- 재조지은에 대한 극진한 대우, 표현 (은덕, 은혜로운 이라는 표현 등장)
- 명 사신을 신선에 비유. 하늘에서 내려온 귀인. 천자로 묘사
- 주지번과 명사절단이 더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
- 중국에 비해 경치가 보잘 것 없지만 (蕃國 중에는) 으뜸이니 즐기길 바라는 마음
- 이별에 대한 아쉬움 표현

1. 전임 판돈녕부사 이광정

「漢江 놀이」

- 배에서 연회를 하는 중
 - “새 시를 꺼리지 않고 아름다운 글 보내 주니, 호의를 잊을 수 없어 잡패로 되갚는다.”
 - “바람과 달빛이 지금까지 적벽에 남았으니, 마음에 품은 생각은 모두 청주에 내맡긴다.”
 - “흐르는 달빛 거슬러 가며 목란 배를 옮기는데 관현악기 울리는 소리가 손님 가지 말라 붙잡는다.”

「배 띄우고 고기잡이 구경하다」

-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배 안에서 연회를 하는 모습.
 - “동산의 음악은 사안을 잊고 적벽의 풍월은 소식을 뒤따른다.”
 - “고상한 이야기와 낭랑한 노래 주고받는데, 좌상의 풍도와 품격이 단정하기 그지없다.”
 - “돌아가는 배에 해 떨어지고 물결이 뜰을 치는데, 아득히 운무에 감싸인 숲 바라보니 얼마나 겹겹이 쌓였는지.”

「蠶頭峯(잠두봉)」

- “비단 자리에 거문고 울리며 술잔이 오가는데, 모래톱 나는 새와 강 위에 뜬 구름이 정답게 느껴진다.”
- “고향 가고픈 마음 말을 해서 마부를 재촉 마소, 이번에 헤어지면 이생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터이니.”
- “멀리 회상해서 뒷날 서로 생각할 때, 이별의 꿈을 부질없이 황성에 보내리라.”

2. 원임 예조판서 이정구(조선 선조, 인조 때의 문신, 학자. 조선 4대 문장가)

「漢江紀遊」

- 왜란 이후의 명의 은덕에 대한 표현
 - “난리 뒤의 강과 산이 기대하는 바 있는 듯한데, 이름난 지역의 풍물이 선양 은덕을 입었다.”
 - “잔 넘치는 신선 막걸리에 우로(雨露) 같은 은혜 섞이고, 붓으로 펼쳐진 황제 은택으로 용의 광채(龍光, 황제가 베푸는 은총) 끝이 없다.”
 - “내일 아침 헤어진 뒤 구름과 진흙이 떨어지니, 한스럽게 표륜(전설상의 神車, 명사의 수레를 높여 이르는 말)보며 붙잡을 수 없으리라.”

「배 띄우고 고기잡이 구경하다」

- 명사신에 대한 칭송
 - “적선 나그네, 신선 발자취가 뜻하지 않게 인간 길에 떨어졌다.”
 - “천자 말씀 홀연히 품고 동국으로 내려와서, 여러 곳 지나가며 높이 오르는 고생했다.”
 - “사람이 태어나서 즐거운 유람 다시하기 어려운데, 하물며 외람되이 하늘 신선 만나 모셨으니”

「여러 날 외람되이 모시고 노닐며 구경했는데, 아주 가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덕택과 은혜로 온화하게 감싸주시니, 이는 실로 천고에 없었던 성대한 일이었다. 더구나 시를 넣은 부채까지 받았는데, 그 정묘한 문장과 글씨는 한 아름의 벽옥을 얻은 것 같아... 표륜이 빨리 돌아 가면 재미있게 노닐었던 일이 꿈과 같이 되니, 어찌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. 감히 경옥 같은 시를 뒤쫓아 영광스런 감회와 슬프고 암담한 마음을 남긴다.」

- 명에 대한 공경. 하사받은 부채의 시편에 대한 칭송.
 - “한각(한림원, 조선시대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대신하여 짓는 것을 담당) 사람들, 못난 사람이 무슨 행운으로 맑은 먼지를 만나게 됐나.”
 - “문장은 두보와 나란히 어깨하고, 정묘한 글씨는 중요와 왕희지의 후신이다.”
 - “네 구 계송법언은 마음의 교훈되고, 부채 하나는 손바닥 안의 진기한 보물이다.”
 - “태성의 궤도 따라 밤마다 하늘 올려다보며, 옥같은 문장에 답하여 찬양하니...”

3. 병조판서 허성

「보배스런 부채와 옥 같은 시편을 품격이 낮고 편한 사람에게 주시어, 백번이나 소리 내어 읽으니 감명받은 받가 실로 많아. 삼가 원운을 뒤따라 화답하니, 밝게 살펴 주시기를 우러러 기대한다.」

- 명에 대한 은혜 표현.
 - “팔조(八條, 기자가 조선에 와서 가르쳤다는 팔조금법)의 남겨진 은택이 동방에 스며는데, 어진 은혜가 먼 백성까지 미쳤음을 이제 다시 기뻐한다.”

「배 타고 고기잡이 구경하다」

- 명을 칭송하는 내용
 - “무창은 유양으로 칭양되고, 적벽은 천년 동안 소식으로 회자됐다. 그 누가 금란과 같은

제일류인가, 하늘에서 명령품고 향기로운 모래톱에 내려왔다.”

- “신선 수레가 홀연히 돌아가니 강변길이 쓸쓸한데, 아득히 먼 물가가 어렵풋하고 안개 낀 물이 텅 비었다.”

4. 승정원 도승지 윤방

「聖人을 알현하다」

- “인륜 밝히는 삼대(하, 은, 주의 중국 고대 세 왕조)의 학문을 권유하며, 영성에 관한 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.”
- 문자를 함께 씌에 이미 멀고 가까운 구별 없으니, (천자의) 교화를 반포함에 어찌 지나치고 보살피는 구분 있겠나.

「배 띄우고 고기잡이 구경하다」

- “술 자리에서 여러 번 입은 은혜로운 뜻이 무거워서…”

5. 성균관 사예 이지완

「삼가 옥 같은 시편을 받잡고 백 번이나 엄숙하게 읊었다. 스스로 생각건대, 평범하고 미천한 자가 어찌 이를 얻고서 감히 졸렬한 글을 피할 수 있겠는가 삼가 원래의 운을 따라 지었으니, 품평하고 감별해 주시기를 바란다」

- 시편을 선물받고 감복하는 감정들, 시에 대한 칭송,
 - 밝은 구슬(명사에게서 받은 시편) 기쁘게 얻어 소매 속에 가득 넣으니, 해동(조선)에 이르기 전날 밤에 문성(文才가 있는 사람, 명사를 높여 부르는 말)이 비쳤었다.
- 「송별」이라는 시를 지어 올림.

6. 예조 좌랑 조희일

「삼가 옥 같은 시를 천하고 용렬한 자가 받게 되어, 되풀이하여 읽어 그치지 않았다. 몹시 감격하여, 자신의 고루함을 잊고서, 삼가 높은 운을 이어서, 변변치 못한 뜻을 조금 펴려고 한다」

- 「증별」 시문을 지어 올림:
- 찬란한 명의 문명으로 천하가 안정되어 있다.
 - “大明이 천명 받아 온 천하가 평안하고, 오성이 찬란하게 열려 文明이 상서롭다.”
 - “재능 있는 무리 일어나서 운을 타고 창성하고, 제도 문물 잘 갖춰져 한과 당을 앞질렀다.”
- 시문의 우수함과 광채를 감상하며 음미함 -> 명에 대한 충정과 정성으로 변화함.
 - “공덕을 칭송함이 황태자에게까지 이어지니, 四海의 사람들이 목길게 빼고 멀리 본다.”
- 명의 국가지대사를 다스릴만한 기량을 가진 천자의 공덕과 문장, 은혜로움 칭송.

- 부채에 있는 시문에 대한 감탄.
- 사신단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과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마음.

7. 성균관 직강 허균

「달천(達川)」

- “관개는 백성의 이익을 가져다주고, 풍년은 한 해의 수확을 돕는다.”
- “옥 같은 시편을 유람의 기록을 남겼으니, 재삼 감탄하며 다함이 없음을 생각한다.”

「뜻하지 않게 옥 같은 글을 평범하고 천한 자에게까지 내려주셔서, 재삼재사 엄숙하게 읽고 가슴 깊이 감명받았다. 이에 삼가 두서없는 글을 지어 우러러 밝은 가르침을 구한다」

- 허균은 주지번을 옆에서 영접했던 인물.
 - “송대 주희의 正學을 잇는 데 마음을 두었다.”
 - 멀리서 붉은 사절 찾아오고 준수한 자태 뛰어나게 돋보인다.
 - 천박함을 부끄러워하며 외람되이 맞이하고, 수레 덮개 뒤따라 모시며 사중들었다.
 - 바위 정자 감상하며 신속하게 붓 내려서, 상세하고 명확하게 산봉우리 펼치니 ….. 더구나 미묘한 말로 부채에 제문 쓰니, 광채 찬란한 여주(귀한 사람 비유하는 말)가 이제 처음으로 보인다.

「여러 달 옆에서 모시며 친근하게 목소리와 용모를 뵈었는데, 옥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매우 많은 은혜를 베풀어 비천한 자를 마음에 두고 생각해 주었으니, 이를 어떻게 좌우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. 이제 신선의 수레가 돌아가며 길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, 더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다. 신선과 범인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어, 이별의 슬픔이 마음에 맺혀 그리움이 사무쳐서 감히 장구에 의지해서 제 심정을 풀어볼까 하니, 분명하게 살펴 가르쳐주시기를 바란다」

- 태자 탄생과 황제의 명에 대한 상서로움을 표현.
 - “기자가 책봉된 곳 총애하여 예속을 돈독히 하고, 특별히 조서를 발포하여 수방에 은혜 베풀었다.”
- 옥같은 서찰을 왕부에 전하자마자 이내 수레를 돌려 돌아가는 데에 대한 이별의 안타까움.
- 명 사신이 남긴 시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표현들.

8. 지중추부사 정창연

「聖人을 알현하며」

- 왜란 이후 명의 은혜에 대한 표현
 - “다행히 전쟁 벗어나 현악 맞춰 시 읊게 되었으니, 넓은 하늘 아래 황제 은택이 동변에 가장 많이 베풀어졌다.”

9. 성균관 대사성 홍이상

「聖人을 알현하며」

- 명과의 同文을 상당히 강조
- “성대한 성대에 문화를 함께 하니, 동한(조선)이 外藩이라 말하지 마소.

『奉使稿』(卷數가 없음, 양강총독이 찾아서 올린 판본.)

- 명의 주지번이 지었다.
- 주지번은 만력 을사(1605년)년 겨울에 조선에 사신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만력 병오년(1606년) 음력 2월에 도성을 나갔다가 여름에 관내로 돌아왔다.
- 관반과 돌아다니면서 선창하면 반드시 화답함이 있어 이를 기록하여 두 권의 큰 책을 만들었다.
- 제1권은 『봉사조선고』, 모두 주지번의 작품. 제2권은 『동방화음(東方和音)』, 조선국 의정부 좌찬성 류근 등의 시이다. 끝 부분에 을미년의 제책 일 도(천자가 친히 내는 국가 현안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글)와 동각(명청대 대학사가 집무하던 전각)의 창화시 몇 수가 있음.
- 『천경당서목』명대의 책과 저자를 수록한 책)에는 주지번의 저서가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과는 대동소이함. 이 책은 별개의 한 판본으로 보인다.